

<2013.11.28~2013.11.29.>

## 전 북 일 보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 행사에 초청된 여행 작가와 여행 블로거들이 고인돌 유적지 너머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다.

# 고창군, 운곡습지 가치 알린다

## 여행전문가 초청, 1박2일 생태체험 행사 용계·독곡마을, 모니터링 투어 등 추진 계획

고창군이 여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 홍보에 나섰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 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열리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여행 작가와 블로거 등 운곡

습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총 5회에 걸쳐 79명)가 참여했다.

여행작가와 블로거들은 고인돌 유적지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운곡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으며, 습지마을인 용계·독곡마을 주민과 숙식을 함께 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하는 방안

을 모색했다.

이번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운곡습지 외에도 1박 2일 동안 선운산과 문수사, 고창읍성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 관광명소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특히 운곡습지 주변에 위치한 아산면 용계마을과 독곡마을 주민들은 바쁜 영농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주민들은 앞으로 모니터링 투어,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추진, 생태마을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 고창 '운곡습지'서 생태체험 행사

### 郡, 여행관련 전문가 초청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하기 위해 여행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습지생태 탐방을 실시했다.

지난 9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하는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개최됐다.

올해는 여행 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

운곡습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초청, 총 5회에 걸쳐 7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행작가와 블로거들은 고인돌 유적지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운곡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습지마을인 용계·독곡마을 주민과 함께 숙박과 식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 겪고 있는 고민도 함께 나눴다.

또한 전문가들은 운곡습지 외에도 1

박 2일 동안 선운산과 문수사, 고창읍성 등을 함께 둘러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관광명소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운곡습지를 처음 방문했다는 유정열씨(한국여행작가협회 총무이사)는 "운곡습지가 고창의 시크릿가든으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처음 운곡습지를 찾은 박재완(무등일보 여행기자)씨는 "운곡습지에서 흐르는 물을 탐방객들이 식수로 떠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 전라일보



고창군에서 실시한 전문가 초청 운곡습지 생태체험에서 참여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여행 전문가 운곡습지 생태체험

고창군이 여행 분야 전문가와 블로거 등을 초청, 생물권보존지역 핵심지역으로 분류된 운곡습지 홍보에 열중했다.

지난 9일부터 28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한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총 5회에 걸쳐 7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운곡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으며 습지마을인 용계·독곡마을 주민과 함께 숙박과 식사 및 간담회를 개최해 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이번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운곡습지 외에도 1박 2일 동안 선운산과 분수사, 고창읍성 등을 함께 둘러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 관광명소를 두루 두루 살펴보았다.

/고창=신동일기자·sdl@

## 새전북신문



**고창군, 여행 전문가 초청 운곡습지 홍보** 고창군이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한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번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운곡습지 외에도 1박2일 동안 선운산과 문수사, 고창읍성 등을 함께 둘러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 관광명소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김동희 기자



## 전북중앙신문

### 고창군, 여행분야 전문가 초청 운곡습지 생태체험 행사 개최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한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올해는 여행 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 운곡습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초청, 지난 9일부터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7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행작가와 블로거들은 고인돌 유적지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운곡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습지마을인 용계·독곡마을 주



고창군은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 사업'의 일환으로 9일~30일까지 여행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 생태체험 행사를 가졌다.

민과 함께 숙박과 식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 겪고 있는 고민도 함께 나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운곡습지를 처

음 방문했다는 유정열씨(한국여행작가협회 총무이사)는 '운곡습지가 고창의 시크릿가든으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라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처음 운

# 운곡습지에 여행 전문가들 ‘엄지손’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했다.

11월 9일부터 말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한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올해는 여행 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 운곡습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초청, 총 5회에 걸쳐 7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행작가와 블로거들은 고인들 유적지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운곡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생태

## 고창군, 작가·블로거 초청 5회 걸쳐 탐방 홍보

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습지마을인 용계·독곡마을 주민과 함께 숙박과 식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 겪고 있는 고민도 함께 나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운곡습지를 처음 방문했다는 유정열씨(한국여행 작가협회 총무이사)는 “운곡습지가 고창의 시크릿가든으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

역시 처음 운곡습지를 찾은 박재완씨(무등일보 여행기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다양한 생태 자원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면서 운곡습지에서 흐르는 물을 탐방객들이 식수로 떠먹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운곡습지 외에도 1박 2일 동안 선운산과 문수사, 고창읍성 등을 함께 둘러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 관광명소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특히 운곡습지 주변에 위치한 아산면 용계마을과 독곡마을 주민들은 바쁜 영농일장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잡자리를 마련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그 덕분에 방문객들마다 고향과 같은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앞으로 모니터링 투어,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강의 등 일정을 추진하면서 운곡습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생태마을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창=임동갑기자



#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 전개

여행분야 작가·블로거 초청 습지마을·관광명소 등 둘러봐 '큰 호응'

고창군이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했다.

지난 9일부터 말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한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올해는 여행 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 운곡습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초청, 총 5회에 걸쳐 7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행작가와 블로거들은 고인돌 유적지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운곡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습지마을인 용계·독곡마을 주민과 함께 숙박과 식사 및 간담회를 개최해 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 꾀고 있는 고민도 함께 나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운곡습지를 처음 방문했다는 유정열씨(한국여행작가협회 총무이사)는 "운곡습지가 고창의 시크릿가든으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처음 운곡습지를 찾은 박재완씨(무등일보 여행기자)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다양한 생태 자원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면서 운곡습지에서 흐르는 물을 탐방객들이 식



고창군이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 생태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로 떠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운곡습지 외에도 1박2일 동안 선운산과 문수사, 고창읍성 등을 함께 둘러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 관광명소를 두루두루 살펴봤다.

특히 운곡습지 주변에 위치한 아산면 용계마을과 독곡마을 주민들은 바쁜 영농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그 덕분에 방문객들마다 고향과 같은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앞으로 모니터링 투어,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강의 등 일정을 추진하면서 운곡습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생태마을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용계마을과 독곡마을이 습지마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생태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 전 주 매 일



고창군은 여행 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을 초청하여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했다

### “운곡습지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

고창군, 여행 작가·블로거 초청 체험행사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했다.

11월 한달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한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올해는 여행 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 운곡습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초청, 총 5회에 걸쳐 7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행작가와 블로거들은 고인들 유적지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운곡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습지 마을인 용계·독곡마을 주민과 함께 숙박과 식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 겪고 있는

고민도 함께 나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운곡습지를 처음 방문했다는 유정열씨(한국여행작가협회 총무이사)는 “운곡습지가 고창의 시크릿가든으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처음 운곡습지를 찾은 박재완씨(무등일보 여행기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다양한 생태자원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면서 운곡습지에서 흐르는 물을 탐방객들이 식수로 떠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운곡습지 외에도 1박 2일 동안 선운산과 문수사, 고창읍성 등을 함께 둘러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 관광명소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의 ‘시크릿가든’을 찾아서

운곡습지 생태체험 운영... 여행 작가·블로거들 단성 ‘절로’



고창군은 운곡습지 홍보를 위해 전문가 초청 운곡습지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탐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했다.

지난 9일부터 이달말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한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올해는 여행 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 운곡습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초청, 총 5회에 걸쳐 7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행작가와 블로거들은 고인돌 유적지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운

곡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습지마을인 용계·독곡마을 주민과 함께 숙박과 식사 및 간담회를 개최해 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 겪고 있는 고민도 함께 나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운곡습지를 처음 방문했다는 유정열씨(한국여행작가협회 총무이사)는 “운곡습지가 고창의 시크릿가든으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처음 운곡습지를 찾은 박재완씨(무등일보 여행기자)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다양한 생태 자원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면서 “운곡습지에서 흐르는 물을 탐방객들이 식수로 떠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운곡습지 외에도 1박 2일 동안 선운산과 문수사, 고창읍성 등을 함께 둘러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 관광명소를 두루두루 살펴보았다.

특히, 운곡습지 주변에 위치한 아산면 용계마을과 독곡마을 주민들은 바쁜 영농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그 덕분에 방문객들마다 “고창과 같은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앞으로 모니터링 투어,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강의 등 일정을 추진하면서 운곡습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생태마을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용계마을과 독곡마을이 습지마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생태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병훈 기자

# 고창, 생태 관광명소로 육성

### 여행 전문가 초청 운곡습지 홍보... 작가·블로거들 '환호'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탐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했다.

11월 9일부터 말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고창군이 주관한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올해는 여행 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 운곡습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초청, 총 5회에 걸쳐 7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여행작가와 블로거들은 고인돌 유적지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이어지는 운곡습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습지마을인 용계·독곡마을 주민과 함께 숙박과 식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하기 위해 겪고 있는 고민

도 함께 나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운곡습지를 처음 방문했다는 유정열씨(한국여행작가협회 총무이사)는 "운곡습지가 고창의 시크릿가든으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처음 운곡습지를 찾은 박재완씨(무등일보 여행기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다양한 생태 자원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면서 운곡습지에서 흐르는 물을 탐방객들이 식수로 떠먹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운곡습지 외에도 1박 2일 동안 선운산과 문수사, 고창읍성 등을 함께 둘러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 관광명소를 두루두루 살펴 보았다.

특히 운곡습지 주변에 위치한 아산면 용계마을과 독곡마을 주민들은 바쁜 영농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그 덕분에 방문객들마다 고향과 같은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돌아간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앞으로 모니터링 투어,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강의 등 일정을 추진하면서 운곡습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생태마을로서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용계마을과 독곡마을이 습지마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생태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 고창군, 운곡습지 홍보체험행사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3-11-28 13:45:07]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여행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홍보했다.

군은 환경부가 주최한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습지 생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여행분야 작가와 블로거 등을 초청해 홍보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총 5회에 걸쳐 79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운곡습지 곳곳을 둘러보며 생태계가 회복된 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했고 인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운곡습지와 더불어 상생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했다.

이들은 운곡습지를 비롯한 선운산과 문수사, 고창읍성 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생태관광명소를 두루 살펴보기도 했다.

한국 여행작가협회 유정열 총무이사는 "운곡습지가 고창의 시크릿가든으로서 생태관광 명소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용계마을과 독곡마을이 습지마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생태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6685@newsis.com